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08	08. 15	08. 22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통성 기도
성 경 봉 독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노지민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교회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 영성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 말씀방 - 매일 말씀과 기도 나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은 목사에게 신청하세요
3. 이사 - 윤성봉 형제(Hamburg)
4.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황희순 집사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01장 다같이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15 : 1 - 5(구p811)..... 정용현 안수집사
 (Psalm 15:1~5)
 설 교 Predigt 주의 전에 거할 자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05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황희순 집사

기쁨에 회심하다

George Herbert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소서. 마치 당신의 축복이 따로 떼어 놓은 날에만 있는 양 형편 좋을 때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심장 고동 소리조차 당신께 드리는 찬양이 되길”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역시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만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수십 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회심한 것은 아홉 살 때였고, 기쁨에 회심한 것은 50살 때였으니 말입니다. 어느 해인가 휴가를 마친 나는 다시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제가 부담이 되었고 집안의 분란도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일을 하겠노라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2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다. Ben 네가 기쁘게 봉사할 수 없다면 그걸 봉사라고 부르지 마라. 감사하지 않는 네 태도는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날 밤 기쁨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기쁨은 선물이기도 하지만 선택이 기도 합니다. 나는 기쁨을 피동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모든 조건을 이미 내게 갖춰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네게는 진실로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제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 Ben Petterson 목사
(미국, New Providence 교회 담임)**

*** 당신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당신에게는 복이다
- Charles Stanley 목사(Atlanta 제일침례교회 담임)-**